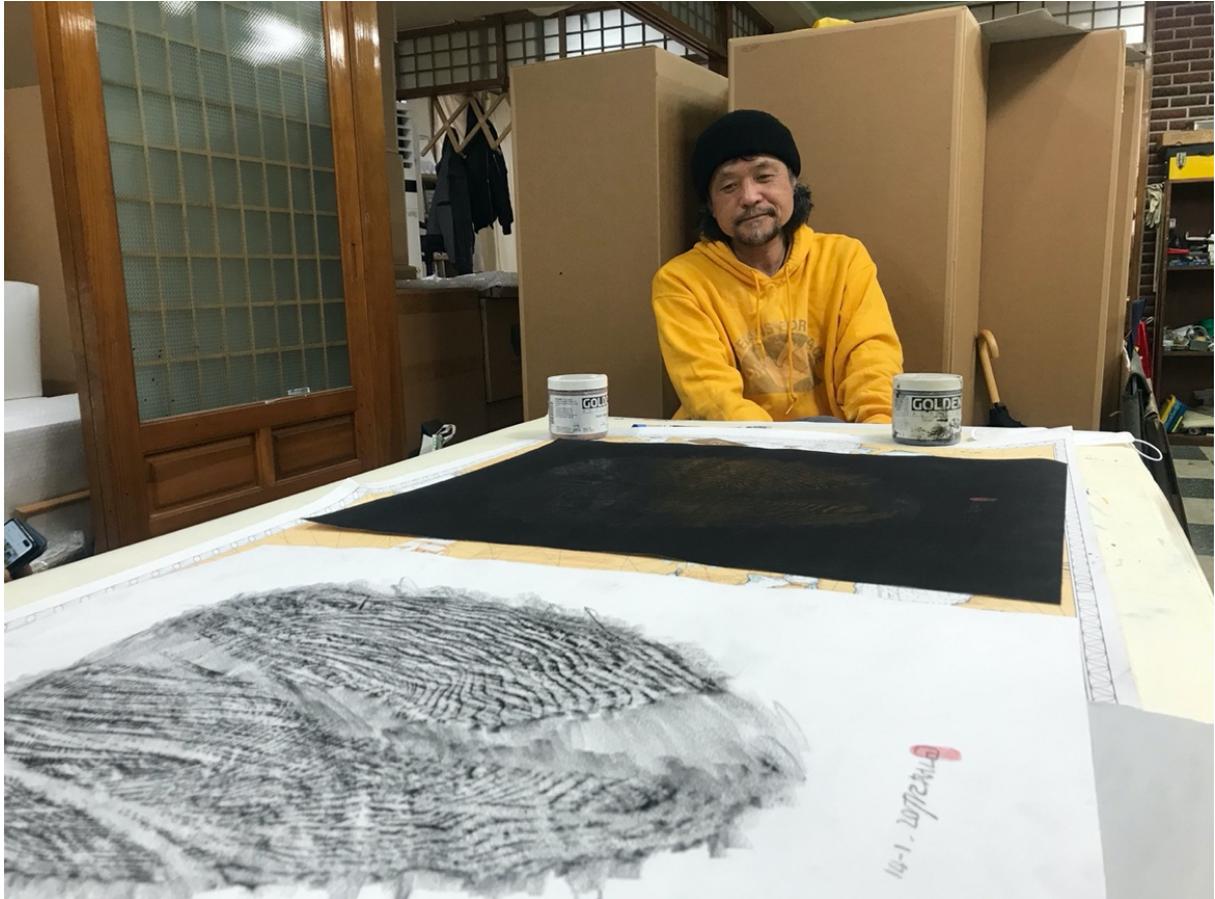




### 제주33 프로젝트

섬의 대지는 한정된 반면에 그 위에서 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는 생태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제주33프로젝트>는 한반도 남단 북위 33도에 있는 섬 제주도의 생태를 지키려는 지적, 창의적 노력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프로젝트이다. 생각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환경, 생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오름, 곶자왈, 한라산 등 자연을 관리하는 법안들이 대두된 것은 이런 조사와 교육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그 결과 입법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제주33프로젝트>가 진행되던 동안 가장 참여한 문제는 제주 제2공항 찬반 문제였는데 결국 국토부가 인정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이 나왔던 것도 제주의 NGO들이 얼마나 의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보여준다. 이번에 만난 사람들은 개인, 단체, 조직, 기구 등 여러 형식으로 저마다의 활동과 투쟁을 하고 있었다. 바닷속 온난화를 추적하는 개인부터 일회용품과 화학약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 해안가 모래에서 '비치코밍'을 하는 예술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결국 진지한 변화는 정치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까지 다양했다. 생태적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자료, 사례들이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는데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

## 고길천 작가



“관광산업에 치중된 산업 구조가 제주다움을 점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같은 벌채나 채굴 뿐만 아니라, 농지도 없어져갑니다. 예술가로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꿈을 꾸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좋겠습니다…제주에서 1차 산업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이라고 하면 농업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농사일부터 시작해서 생산된 작물들을 가공하고, 필요한 물건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현준 대표(제주환경일보)



“아마 지금 이대로 성산지역에 제2 공항이 만들어지고 제주신항이 건설되는 등 개발계획을 멈추지 않으면 아마 제주도는 죽음의 섬 또는 쓰레기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한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음놓고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이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총량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이끄는 리더들이 모두 앞장서서 지혜를 모으고,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 김완병 박사(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양은희 인터뷰



“수많은 새들을 만나면서 새들의 습성을 알아가는 학문적 성과보다는 새들에게 닥친 위험이 곧 제주 사람들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섬이 문명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천국으로 변해가는 동안, 곳곳의 생태환경은 새들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들 뿐만 아니라 조간대의 말뚝게, 갯자왈의 달갈버섯, 계곡림의 긴꼬리딱새미, 뱅딤의 뿔소똥구리, 오름의 피뿌리풀, 습지의 참개구리, 윗세오름의 노루, 백록담의 암매 등 제주를 대표하는 동식물 자원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김키미(개구럼비 마르쉐 대표)**



“제주에 필요한 것이라면 도정의 변화입니다. 개발주의 정책과 시대착오적인 행정들은 제주를 파괴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주요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도정에서 특히나 멸종시기에 생태보고인 한라산 중산간 이상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던가 식수 곤란을 겪고 있어 단수가 잦은 제주에 외국자본에게 시민들의 식수원이상의 땅을 팔아먹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제주의 생태와 미래는 결국 전지구적 문제의 일환이겠지만 특히나 관광산업에 주력하는 제주의 오폐수와 쓰레기, 땅값 상승은 결국 하와이의 뒤를 밟는 결과를 예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신현정 녹색당 청년대표 / 양은희 인터뷰



“기후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기도 하죠. 올해 ‘한살림’에서 물건을 사는데 참깨와 참기름이 수급이 안된데요. 올해 폭우로 인해 참깨농사가 안됐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공급이 안되는 상황이 온 거죠…제주의 해수면이 세계 평균보다 3 배이상 빨리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지하수에 염수가 침투하는 것이예요. 압력 문제로 한번 지하수가 염수에 침투되면 다시는 지하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제주 전역의 지하수가 바다 물로 채워지겠죠. 그럼 삼다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는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해수면 상승으로 제주에서 먹거리를 수급할 수 없는 시간이 올 지도 모릅니다.”

## 양수남 대안사회국장(제주환경운동연합) / 양은희 인터뷰



“30년 전에 비해서 환경은 악세사리가 아니라 핵심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나 자치단체는 아직도 개발 우선주의가 기조이지만 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된 것입니다. 개발사업들을 못 막았지만 개발의 속도는 조금이나마 늦췄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될 면적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곳들에 대해서 행정당국은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주의 소중한 자원이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다슬 작가 / 김해다 인터뷰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면서 제주의 자연은 소유와 정복의 대상으로 변했으며, 인간관계의 사회적 지형 또한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자본의 힘은 그렇게 놀랍도록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했고, 도시와 마을은 서서히 황폐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멀어졌고 자연스럽게 누렸던 익숙한 풍경은 이제 돈을 지불해야만 감상할 수 있는 소유물로 바뀌었지요. 결국 그들에 의해 동시대의 풍경은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풍경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속도와 자연의 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간격들을 찾아다니며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임형묵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기후변화를 걱정할 때 감수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는데, 원인을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산업혁명, 기후변화는 원래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감수한 삶처럼 자연친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변화는 미미할 거예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100이라는 노력이 필요한 데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으로 가져올 변화는 한 자리 수도 되지 않을 거예요. 결국 기후변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생태가 살아나야 돼요. 바닷속, 아마존 밀림, 맹그로브 등이 살아나야죠. 세계정상들이 모여서 해결해야죠. 제주가 탄소제로를 말하는데, 우리는 탄소가 필요해요. 탄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해주어야죠.”

정은혜 작가



“미세플라스틱을 줍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제 눈이 뜨여서 더 보게 된 것이지 상황이 나빠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예민하게 되고 관점이 달라져서 심각하다고 느끼게 되요. 엄청난 쓰레기를 발견하게 되고, 태풍이 오면 더 많은 쓰레기를 발견해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안 볼 수가 없다고 해요…제 작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토해내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을 바다에 뿌리면서 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작업의 초점이에요.”

### 조약골 (햇핑크돌핀스)

“지난 10년이 흐르면서 해안 난개발, 펜션과 카페 등의 무분별한 건립, 해안도로 건설, 갯바위 파괴, 해안 매립,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한경면 일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선박 물동량 증가 등의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돌고래들은 연안 정착성이라서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제주 해안 가까운 곳에 정착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제주 연안이 점점 돌고래들이 살기에 부적절한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남방큰돌고래들은 대정과 구좌 일부 연안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또한 제주도내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배출되는 경우가 늘면서 제주 연안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하핑크돌핀스가 활동을 시작한 2011년에 비해 2021년 지금 전반적으로 제주의 해양생태계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핑크돌핀스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최혜영 작가(제주코랄 프로젝트)**



“해군기지 준공 이후 강정 앞바다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정등대와 서건도 일대는 퇴적물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육안으로도 탁도가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 과정의 다양한 문제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서남방파제와 동방파제로 인한 조류의 변화는 산호 생태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공사 완공 이후에도 입출항 선박에 따른 여러 요인으로 산호 생태계는 변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처음엔 ‘산호 이상 무’라고 주장했지만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현원학 박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제주도는 실제 행동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땅이 좁은 곳이어서 행동만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바다부터 한라산까지 나타나는 현상들은 제주를 전 세계에 기후변화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참여한 곳으로 만들기에 매우 적합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용머리해안은 해수면 상승이 현저한 곳인데, 그런 장소에서 해수면 상승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거나, 한라산에서 구상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굴 재배 지대가 제주를 넘어 전라남도로 상승중이라는 사실, 자리 돛이나 방어가 사라지고 열대성 어종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홍보 등에 적절한 곳이지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등 기후변화 이후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 제주33프로젝트 팀



- 기획자 양은희는 뉴욕시립대학교에서 미술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스페이스 D 디렉터이다. 그동안 전지구화, 젠더, 코스모폴리타니즘 등의 주제로 현대미술을 연구해 왔으며 2009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등 여러 전시를 기획한 바 있다. 저서로 『22개의 키워드로 보는 현대미술』(2017, 공저), 『diaspora 지형학』(2016, 공저), 『뉴욕, 아트 앤 더 시티』(2007, 2010)가 있으며, 역서로는 『개념 미술』(2007), 『아방가르드』(1997), 『기호학과 시각예술』(1995, 공역)이 있다.
- 김해다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각을, 런던 SOAS University of London에서 동아시아미술사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동시대 미술에서 한국의 지역성이 발현되는 지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서구 중심적 근대성에 대항하는 방법론으로서의 동아시아 종교의 가능성을 탐구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전시 기획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 박민희는 시각예술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와 역사 읽기에 흥미를 갖고 전시기획과 아카이브 작업을 한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마음의시력'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신예선, 스톤김, 최성임 3인 전시 <쓸모를 잇는 시간>(엔트러사이트 제주 한림, 2020) 기획 진행, 2020세계유산축전: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불의 숨길 아트프로젝트 <불의 기억: 자연, 인간, 생명의 길> 코디네이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창의예술교육랩 교육매니저 등으로 활동 했다.
- 이주희는 학부에서 문예창작과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홍익대 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제주 아트랩와산의 디렉터이다. 새로운 세대의 미학적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현장 비평과 기획을 수행하고 있다.
- 정필주는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세부전공: 예술사회학)을 수료하고 현재 예술기획단체 예문공 대표이다. <Knocking the Door>(2021), <수면으로부터의 작업실>(2020)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예술가의 사회적 정체성, 예술가 복지, 여성주의, 공공예술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저서로 『큐레이팅을 말하다』(2019, 공저), 『화가의 빛이된 아내』(2006) 등이 있다.